

화정 아이파크 부지 매입 불법 정황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앤콘스, 지역 업체에 구입 맡기고 '미등기 전매' ...경찰, 4곳 압수수색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부지 매입시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부지 매입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함께, 건물 신축 전 철거를 진행한 철거업체를 압수수색에 포함하는 등 경찰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철거비리로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 등으로 4명(법인1곳 포함)을 추가 입건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 토지 매입업체, 철거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이앤콘스가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 구매시, 중간매매업체가 매매를 했음에도 소유등기는 직접 토지 소유주에서 아이앤콘스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앤콘스는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로 화정동 아이파크 건축부지 23개 필지(약 2만㎡)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앤콘스가 매입 과정에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건축부지를 HDC아이앤콘스가 직접 구매하면 1군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퍼져 토지를 판매해 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을 예상해 지역 토지매입 업체에게 대신 구매를 맡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업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뒤, 다시 아이앤콘스에 등기를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미등기 전매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등기를 생략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 회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철거업체가 포함됐다. 학동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철거비리가 또 다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속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비리에 다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철거 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는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매입업체와 철거업체 사이에 모종의 거래로 인해 특정 철거업체를 선정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과 관련해 총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불법 채도도급과 계약비위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 혐의로 법인 3곳을 포함 총 8명이 입건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5·18 42주년 슬로건 확정

42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의 슬로건이 최종 확정됐다.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슬로건으로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대표 슬로건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40건의 공모작중 당선작 1건과 우수작 5건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당선된 대표 슬로건은 '우리 모두의 오월에, 치유와 희망찬 진실의 힘을 모아 더 큰 평화를 그리며 새 시대와 새 미래를 여는 빛으로 함께하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외에도 '오월의 정신을 기리다, 평화의 내일을 그리다', '찬란한 오월의 영혼들, 빛나는 지금의 우리들', '기억하는 우리의 오월, 이어가는 모두의 오월', '폼이라 오월의 꿈, 피이라 평화의 꽃', '오월정신! 희망을 수놓다, 평화로 꽃피다' 등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엠블럼은 지난 2020년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엠블럼을 올해도 사용한다.

5·18 행사위 관계자는 "참신성, 독창성, 확장성이다 소아쉬웠으나 시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진상규명, 오월정신, 헌법 등 직설적 표현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오월정신을 현재화시키는 짧고 경쾌한 메시지가 뽑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5·18기록관, 3~6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 5·18 사적지를 탐방하는 5·18민주화운동 현장답사프로그램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현답사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적지를 둘러보고 오월정신의 발자취를 직접 느끼고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등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일정은 A코스(1시간)와 B코스(2시간)로 나눠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1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한다. A코스는 5·18기록관-금남로-전일빌딩-옛 전남도청-상무관 옛터 구간이고, B코스는 5·18기록관-홍남순 변호사 자택-광주MBC 옛터-녹두서점 옛터-광주YMCA 옛터-옛 전남도청-전일빌딩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2일부터 5·18기록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집콕 운동교실 무료로 참여하세요”

동신대 내달 3월 7일부터 8주간...오전·오후반 전화 접수

동신대학교가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신대 나주체력인증센터는 코로나19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감염 걱정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비대면 운동교실'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비대면 운동교실'은 화상채팅 플랫폼인 구글미트를 이용,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비대면 운동서비스다.

나주체력인증센터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와 오후 7시, 2개 반을 개설해

오는 3월7일부터 8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50분 동안 근골격계 질환 예방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맨몸 서킷 트레이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동신대 나주체력인증센터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이중철 동신대 나주체력인증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 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사성,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유권자의 품격을 보여 주세요. 24일 오전 광주시 말바우시장 인근 벽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중 일부가 훼손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감 선거전 개막...일제히 출판기념회

장석웅 오늘 순천·김대중 오늘~내일 목포·김동환 오늘 나주시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일제히 출판 기념회를 열어 얼굴 알리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재선에 나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들'을 발간하고 2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출판기념 저자사인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 7월 이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기치로 지난 4년간 펼쳐온 교육혁신 여정과 전남교육의 청사진을 이번 책에 담았다. 26일 열리는 사인회는 오전(9~12시)과 오후(1~5시)

로 나눠 분 행사 없이 저자인 장 교육감이 독자들을 만나 책에 사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도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출판기념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갖는다.

김대중 후보의 저서 '김대중의 전남교육 대전환'에는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돼 다시 교단에 서기까지 30년, 목포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출마, 전남 교육청 비서실장을 거친 후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행사는 26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2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며 화환을 받지 않는 대신 도서관에 보낼 책을 기부받는다.

저서 '교육의 바른길, 우리 함께 갑시다'를 출간한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도 26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마지막 사인회를 진행한다.

저서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젊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힌 김동환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을 시작으로 19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저자사인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야외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후보의 자녀들이 직접 버스킹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동구 '도랑살리기 사업' 4년 연속 선정

광주시 동구가 마을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2년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3700만 원을 확보하고 소태천과 내지천에 ▲도랑환경정비 ▲수질정화식물 식재 ▲민관공동 환경정화 활동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실시 ▲생태·수질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회복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개된 하천과 주변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도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광주시민 내지천과 소태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